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책 속 세계여행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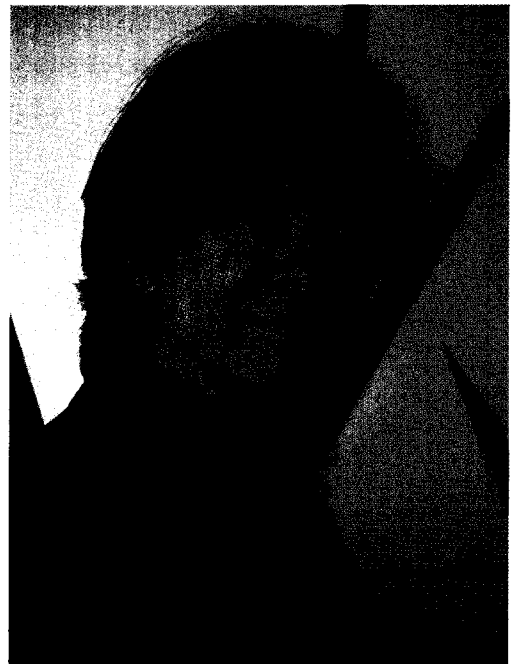
어린이는 즐기고 어른은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

동화작가로 유명한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책 속 세계여행전시회가 오는 8월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전작 31권의 일러스트 원화 280여 점과 현대미술가들의 입체 조각 및 영상작품들로 구성된다.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마련돼 있으며, 전시회에 입장한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앤서니 브라운의 창의력향상 워크북을 증정한다. 한편 앤서니 브라운의 낭독회는 8월 5일과 6일 열리며, 사인회는 오는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자세한 일정은 전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 앤서니 브라운의 2011 동화책 속 세계여행

2011. 7.10 세종문화회관
- 8.30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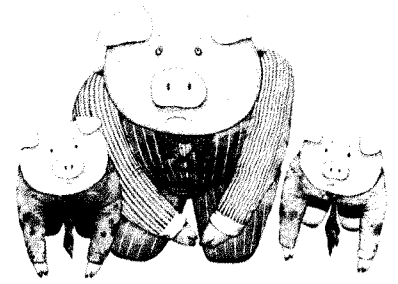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책 속
세계여행전시회
전시기간 7월 10일 ~ 8월 30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관람시간 오전 11시~오후 7시 30분
전시구성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원화 280여 점
현대미술가들의 입체 조각 및 영상작품
전시문의 02-3143-4360
홈페이지 www.anthonybrowne.co.kr

Artbus, 세계여행, 세종문화회관, LUK BARRA, MILK AND HONEY, 아트북스, 나옴, 02-3143-4360, www.anthonybrowne.co.kr

미리보는 대표작품

돼지책 Piggy book, 1986

<돼지책>은 앤서니 브라운의 책 가운데 가장 설교조의 작품이다. 어머니 혼자 고된 가사노동을 감당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그 고마움을 모르고 손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런 가족의 모습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은 그가 알고 지내던 한 가족을 실제 모델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 가족은 이 책을 보고도 그것이 자신들의 이야기란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앤서니 브라운은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보여주려고 책의 마지막 장면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차를 고치는 엄마는 웃고 있지만, 차의 번호판을 들여다보면 SGIP321(거꾸로 읽으면 123PIGS)이다. 익살스런 작은 농담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상황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음을 암시한다. 집안 남자들이 정말 버릇을 고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Anthony Brown



Anthony Brown

- ▲ 돼지책
- ◀ 미술관에 간 윌리
- ▼ 겁쟁이 윌리

우리 친구 하자 A Walk in the Park

<우리 친구 하자>는 앤서니 브라운의 세 번째 작품이고 두 번째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현대인의 소외와 소통의 문제를 의미심장하게 다루고 있다. 스미드 부인과 아들 찰스는 개 빅토리아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간다. 스미스씨와 딸 스머지도 개 알버트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간다. 두 마리의 개가 제일 먼저 어울려 놀고 아이들도 머뭇거리다 어느새 가까워져 함께 놀기 시작한다. 하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서로를 무시한 채 거만하게 앉아 있다. 마침내 아이들이 겹옷도 벗고 개들과 함께 춤을 춘다. 하지만 찰스가 스머지를 위해 꽃을 꺾어 주는 순간, 부모들은 갑자기 놀이를 멈추게 하고 각자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 단순한 이야기는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금세 소통하는 동물과 아이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전혀 마음의 장벽을 허물지 못하는 어른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소통의 부재에 대해 말하고 있다.



Anthony Brown

앤서니 브라운은

1976년 작품 활동을 시작한 앤서니 브라운은 1983년 <고릴라>와 1992년 <동물원>으로 케이트그린어웨이 상을 수상하였고, 2000년에는 그림책 작가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받았다. 기발한 상상력, 간결하면서도 유머러스한 표현과 탄탄한 구성력, 세밀하면서도 이색적인 그림으로 어린이를 사로잡는다. 창의성을 키우는 셰이프 게임을 보급하여 왔으며 이를 주제로 한 미술 연필을 가진 꼬마 곰 시리즈를 출간하였다.

앤서니 브라운의 전시도록

2011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리는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책 속 세계여행>의 전시 작품 전작을 수록한 전시도록이다. 이 책은 앤서니 브라운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전작 31권의 그림들 280여 점을 연대기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 변화 과정을 관찰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동시에 단순한 이미지들만 수록한 것이 아니라 작품 해설 또한 충실하게 함으로써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이 탄생하게 된 자전적·사회적 배경, 작품 특성 등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 외에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 사진들,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을 차용하여 환상적 영상을 창조해 낸 영상작가 이이남의 작품 이미지도 만날 수 있다. ㉠